

寫經은 또다른 '법신 사리'

외길 김경호 선생 '사경' 특별展

1mm의 공간에 우주를 담는다. 지식이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화엄의 세계를 탐구해온 외길 김경호 선생(한국사경연구회 회장·원광대학교 서예학과 강사)은 '일미리중합시방(一米里中合十方)' 사경 특별展을 11월 17일~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공간에 2만5000개의 금선으로 형상화 된 무궁화 한 송이가 피어오른다. 역천만겁의 시간과 삼라만상을 응축하려는 듯 사경행자 김경호 선생의 호흡은 깊고 잔잔하다.

김경호 선생의 12번째 전통 사경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다양한 종류의 사경 유물도 함께 전시된다. 국보 제196호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영인본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다. 기연속 기자



한 권으로 만나는 30년 패션 도전기

'바람의 옷' 디자이너 이영희!

한복 치마저고리에서 저고리를 벗긴 과격적인 발상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녀의 패션 여정 30년을 회고한다. 그녀가 기억하는 '내 인생의 옷 이야기' <파리로 간 한복쟁이>에 감각의 주파수를 맞춰보자.

NO! 키모노코레(한국기모노)! YES! 한복을 외친 그는 프랑스 파리 프레타 포르테(prette porter)에서 1993년 한국 디자이너 최초로 참가해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브랜드 디자이너 너로 거듭나 뉴욕 맨하탄에 '이영희 한국박물관'을 연 것은 순전히 오기의 인과다.

이영희는 그의 색을 회색이라고 부른다. 회색은 만물의 기원이자 궁극의 색이며 부처님의 섭리와 같은 색이라고 여긴다. 세상의 모든 색과 화합을 이루며 부처님의 마음과도 같은 회색에는 아버지와의 유년 시절 대구 팔공산 동화사의 추억이 어렸다. 인간 이영희의 패션 도전기에 얽힌 성공 신화와 그의 자존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디자인하우스 펴냄 | 1만2800원 기연속 기자

'피고지고 피고지고'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서 11월 28일까지 연극으로 그려낸 꿈꾸는 인생 막장

"작가 이만희 선생의 말따따라 평평거리며 살았던 죽을 썬 삶은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어. 살아가노라면 별 다른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지. 공수레 공수거(空手來 空手去)라고 하잖아. 삶의 단면, 그 안의 진술함을 공감할 수 있다면... 연출가의 소망일 테지."

한국의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로 인정받는 연출가 강영걸·극작가 이만희가 연극 '피고지고 피고지고'로 재회한다. 보이지 않는 보름에 대한 미련한 기다림은 욕망이 있는 한 결코 버릴 수 없는 삶의 이유가 되어 또 하나의 '고도'를 그려낸다.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11월 14~28일 무대 위에 올려지는 '피고지고 피고지고'는 1993년 초연 이후 국립극장 50년사를 대표해 찾아온 여섯 번째 무대로 2008년 우수레퍼토리 선정 작이다. 희곡·연출·배우의 연륜이 내뿜는 노련미가 빛어낸 한 편의 연극이, 무무 익은 가을 진정한 삶의 음미를 선물한다.

“백일홍이 피었



나이 칠십을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욕망에 부푼 세 명의 노인. 도박, 사기, 절도, 밀수 등으로 점철된 일상을 살아가던 왕오(이문수), 천축(김재진), 국전(오영수)은 생의 화려한 마지막 베행을 절터 둔황사 도굴에 건다. 프로젝트명은 '신왕오천축 국전(新王五天竺國傳)'. 둔황사 아래 굴을 파오로지 보물을 발견하겠다는 일념뿐이다. 하루하루 한 음습 흠을 파들어 가며 현재의 나이를 그려가던 이들은 인생 막장 참 삶의 의미를 관조한다. 연극 '피고지고 피고지고'는 자가당착적인

삶의 모순을 거지 없이 고백한다. 온 우주의 아픔을 혼자 이고 있는 양 난리법석 치는 건방진 인간의 군상임과 동시에 가파른 인생 골목길 세 노인이 펼치는 마지막 발버둥은 절실한 희망이다. 피고 지는 삶은 마치 인생의 피고 지는 욕망의 피고 지는 의미를 뜻하는 듯하다. 인생 막장에 피어난 일확천금의 환상이 만들어낸 꽃 봉우리는 한 겨울에 피어난 개나리처럼 영동하지않고 그 향기는 천진난만하다.

2001년 공연 이후 7년 만에 관객과의 만남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실제 배우 나이가 극중 인물들과 연배가 났다는 것. 넘치는 에너지와 거침없는 정리되고 마치 낚은 수채화를 감상하듯 애잔함을 나누는 것이 연출 의도다. 무대 위에서 피고 지는 욕망의 회로애락 속에서 관객은 제각기 색다른 재미와 슬픔을 공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가 강영걸·극작가 이만희는 한국 연극의 명콤비다. 이만희 12개 작품 가운데 5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연출자는 "연극을 통해 휴머니즘을 구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휴머니즘은 '배려'다. 왕오, 천축, 국전이 없애 충출하는 것도 배려하는 이유다. 욕망의 개꿈을 정리하고자 한 이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열정의 현장으로 초대한다. 티켓 2~5만원, (02)2280-4115

기연속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미술이 전하는 '無言의 설법'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展

불교가 현대예술에 말을 건넨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송근영)는 11월 20~25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제8회 '전통미술의 현대인식' 회원展을 연다. 불화, 조각, 공예, 사진 등 폭넓은 장르에서 활동하는 회원 30여 명 가운데 26명의 작가가 참여 해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통에서 정통성을 획득하고 동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해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무인 송근영 선생의 작품 '번뇌를 여의고'는 "과연 번뇌를 여의었을 때 어떠한가"라는 화두로 완성된 수작이다. '한 생각 있으니 밝음 나타나'나 '아미타불 다른 곳에 있지 않나'는 몸이 없거나 늘거나 바로 연화국이나 어느 곳 극락 아닌데 어디 있나. 마음에 이르러도 부디 잊지 말라. 생각이 다해 무념에 이르러 네

몸에서 부처의 빛 절로 일리라'는 나용 선사의 말씀을 불교조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국내에 자생하는 다름나무, 티크, 피나무, 대추나무를 사용해 총 125cm로 조각된 작품 '번뇌를 연의고'는 작가의 평소 육바라밀 실천 수행의 결실이다. 연화대의 부처님과 자연은 "모든 번뇌와 망상을 녹여냈을 때 수미산 정에 아름다운 법계가 열려 진여의 광명이 타오르는 불꽃을 형상화 했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다. (02)723-0455 기연속 기자

우주의 진리 '불화' 특별展

목아박물관서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소장 불화를 중심으로 '우주의 진리-불화' 특별展을 11월 30일까지 전시하고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갖는다. 조선시대-근·현대 불화와 밀그림인 초본 약 160여 점을 통해 옛 장인의 숨결을 느끼고 불교미술의 역사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다. 시

대적 양식 및 재료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기회가 될 이번 특별展에는 11월 22일 경기도 여주지역 장애인 100명을 초청해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씨가 불상 조각을 시연하고, 28일에는 목조각장 이수자가 나무불화 채색을 시연한다. (031) 885-9952

기연속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거제도 총명사 이미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진기도



귀의 삼보 하시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셔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께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관, 일반기와강관, 스페트링강관,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생명 에너지를 글썽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규은 가루 자색죽염 125g 27,5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55,000원
2번 규은 보금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